

**베드로전서 5 장 1-4 절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십시오**

1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2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3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 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4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 베드로 전서 5 장 초반부에서 사도 베드로는 장로로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 장 23 절에 사도 바울이 1 차 전도 여행중에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장로들을 임명하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교회의 리더를 장로라고 불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3 장 2-7 절에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자격 요건들과 디도서 1 장 6-9 절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초대 교회의 리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로가 오늘날 장로 교회의 장로와는 같지는 않습니다. 침례 교회에서는 그 당시의 장로, 감독이란 직분이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침례 교회에서는 장로 직분이 없고 목사와 집사의 두 직분만 있습니다.
- 1 절의 내용으로 보아 사도 베드로가 장로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겸손함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장로와 동등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동질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2 절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먹인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목사라는 말이 유래됩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 목자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시편 23 편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이사야 (40 장 11 절), 예레미야 (23 장 1-6 절) 같은 성경에도 목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2 절 이하에서 베드로는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목자가 해서는 안될 일들을 먼저 말하고 이어서 해야 할 일을 권면하는 순서로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돌보는 양떼가 자신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인 것을 인식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고, 이익을 탐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좋은 목자의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초대 교회에서는 좋은 본을 보임으로써 양들을 이끄는 모습들이 많았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 장 1 절). 그리고 이런 본의 가장 궁극적인 본은 예수님 입니다.
- 4 절에서 언급하는 목자장은, 목자들의 리더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 절은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큰 상을 받을 것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이 당시에 면류관은 월계관이었기에 곧 시들고 맙니다. 그런 월계관에 대비되는 말이 ‘변하지 않는’ 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가 내포됩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떤 상 또는 인정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서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4 장 8 절)